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있을까?

-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 연구

조사 및 연구의 취지와 의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는 2010년부터 3년째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활동과 생활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 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가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1960년대 취학률 5.5%에 불과하던 한국 대학교육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현재 대학교육 학령인구(만 18세~21세) 중 70% 정도가 대학에 다니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어느 국가보다도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 기회의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계 유례없는 양적 성장을 이룩한 한국 대학교육에 대해 최근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대학 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가하면, 논문, 특허 등의 연구실적 면에서도 그다지 우수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이 형편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배경으로 정부(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평가 체제를 바꾸는 한편, 대학정보공시제를 시행하는 등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각 대학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도 대학평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주로 교육여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정부가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등과 같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중심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졸업생의 취업률과 교원의 연구실적이 주로 성과로 인정되는

● ● ●
임 후 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

것에 대해 대학교육의 직접적 성과, 즉 학습성과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학습성과의 직접적인 측정 및 평가는 그리 쉽지 않을 뿐더러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과를 가져온 학습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정부는 대학평가체제와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배경으로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대학생의 학습성과 및 학습과정 정보수집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실태를 드러내는 데 있다. 2010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평가도구의 개발에 집중하였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평가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학습 실태를 분석하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주요설문내용

한국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는 수업 중 학습활동, 수업 외 학습활동, 수업만족도, 상호작용, 학습 성과,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의 영역에 걸쳐 총 118개 문항을 구성되어 있다. 조사도구는 학습과정, 학습경험, 좋은 수업 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국내외 대학 학습 관련 조사도구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미국 인디애나대학 고등교육연구소가 개발하여 시행 중인 학생참여에 대한 전국조사(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NSSE), 영국 고등재정위원회(HEFCE)가 시행하고 있는 전국 재학생 설문조사(National Student Survey, NSS), 호주 대졸자경력위원회(Graduate Careers Council)가 주관하고 있는 학습경험 조사(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CEQ) 등을 들 수 있다. 조사명에 나타나 있듯이 대학생의 학습경험 또는 학습과정, 학습참여 등 조사의 관점이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학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경험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도구에는 직접적인 학습활동 관련 문항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험과 기타 활동에 대한 설문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그 밖의 여러 가지 여가활동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업활동은 수업준비, 수업참여, 평가 및 시험과 과제 등의 수업 추수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독서 및 학습 동아리 활동 등이 수업 외 자발적

학습활동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 또는 학습경험에 대한 설문과 함께 학습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학습성과와의 관련성이 분석될 때 학습과정 조사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하여 종합적 사고력, 자기 관리능력,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능력 등의 성장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문항을 개발하였고, 이외에도 수업만족도,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전체적인 대학 추천의사 등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 또한 개발, 조사하였다.

미국 학생참여조사(NSSSE)의 경우,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도전수준이 높을수록, 능동적 또는 협동적으로 학습할수록, 대학 캠퍼스 환경이 지원적일수록,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생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경험을 가질수록 학습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5가지 준거 하에 학습과정에 대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성과가 좋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조사결과 및 의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업 관련 학습경험의 특징은 수업관련 학습경험에 대한 몰입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비중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결과는 수업준비, 수업 참여(발표, 질문, 토의, 필기 등), 동료와의 협력 등에 대해 전체 학생의 3-40% 정도만이 몰입수준의 학습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와 관련된 활동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학습 자체를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해야 할 결과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경험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실태를 보면,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40%에서 많게는 63%에 이른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이외 동료학생, 행정직원 및 지원센터 직원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문하였는데, 교수나 행정직원과의 관계는 무관심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에 비해 동료학생과의 관계는 친근하거나 지원적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업 이외 학습활동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예컨대, 설문조사 참여 학생의 절

반 이상의 학생이 도서관을 자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왜 도서관을 자주 찾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학습하고 있을까? 대학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습스터디 활동이나 독서활동, 봉사활동에서의 적극성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글쓰기와 관련하여 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글을 퇴고하거나 타인에게 교정 받는 등의 활동을 그리 많이 하고 있지 않다.

2011년 연구에서는 표집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업 및 수업 외 학습활동의 특징을 대학유형별, 대학별로 분석하였다. 보다 정교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전체 문항이 아닌 5가지 준거영역과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소재지), 규모(재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을 유형화할 때,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학문적 도전 수준이 다른 유형의 대학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아이디어와 경험, 정보 등의 종합적 연결 및 일상생활에의 적용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그러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이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서울대가 속해 있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문적 도전 수준이 높은 데 비해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례분석에서 서울대는 대학 환경이 지원적이고, 학생들의 학문적 도전 수준이 높으며, 학생들이 능동적 협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다양한 교육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저조한 것은 서울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수도권 대규모 대학 또는 전체 대학과 비교해 볼 때 더 저조하다. 대학 환경에 대해 지원적으로 느끼는 것에 비해 교수진과의 관계의 질에 대해서는 다소 소원하고 지원정도가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문적 도전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5쪽 이상의 보고서나 논문의 작성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을 같이 듣는 수강생과의 협력, 가치관이 다른 친구와의 토의, 동아리 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주요 집단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서울대의 경우, 학년 간, 거주형태가 다른 학생 간에 학습경험의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별, 입학전형 유형별, 전공이수유형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수강신청이나 시험과 성적 관련 의논, 수업 중 질문 및 수업내용에 대한 설명, 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에는 상호작용, 환경의 지원정도, 학문적 도전 수준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학문적 도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으나 당연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저학년들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학문적 도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의 활용

한국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 및 분석 연구는 대학 당국과 교수 및 학생, 나아가 정책입안자 등 고등교육 관련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대학평가 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과정(process) 및 성과(outcome)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크다.

미국의 경우, NSSE 참여 대학들 중 일부 대학들은 자체평가 시에 NSSE 자료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NSSE 자료는 독립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다른 조사자료와 함께 분석될 때 활용가치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주립대학은 자체평가 시 1학년생 생활-학습 커뮤니티 프로그램, 통합 대학 기숙사 프로그램, 공통 교육과정, 졸업인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학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 대학에서는 교수 교육과정 개선 보조금 제도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1학년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과 능동적 학습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도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자료는 교육책임부 정보로 외부에 제공될 수 있고,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교수 및 학습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수 및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대학 교육의 질 제고, 학습성과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차원에서 학습과정 조사자료는 대학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거나 개선하는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기회의 보편화 단계에 도달한 한국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학습 취약 학생 집단의 등장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대학은 이제 적극적으로 학생 학습에 개입하고 학생이 처한 학습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학습과정 조사 자료는 취약점을 보이는 대학 내 학생 집단을 찾아내고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나 전략을 수립하고 개

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2년 3차년도 연구를 마무리하고 다시 2013년부터 5년간 대학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성공 여부는 관심 있는 대학들이 조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대학 교수-학습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대학 당국과 대학 교수 및 지원체제의 적극적 활용을 기대해 본다.

[2012년 2학기] Learn how to learn 학습법 시리즈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학습법 시리즈입니다.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일시
1탄	영어강의 수강전략	영어강의 수강전략, 영어 글쓰기 전략, 영어 프레젠테이션 전략 등	9월 2주
2탄	의사소통능력	수업자료 제작, 프레젠테이션 전략, 집단 토론 전략 등	10월 2주
3탄	학습전략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시간관리와 노트필기 전략, 학습유형검사를 통한 학습전략 찾기	11월 4주
4탄	양적연구방법론	조사연구의 기초 분석, 양적연구를 위한 SPSS 기초 실습	12월 4주
5탄	학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저학점자를 포함하여 학업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코칭 프로그램	2013년 2월

[신 청]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snu.ac.kr>)

[장 소]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